

도서정가제 시행 100일... 뭐가 달라졌나



시행 100일을 맞은 도서정가제 모니터링 결과, 단행본 가격이 평균 4.2% 하락했지만 학습참고서 등 일부 도서에서는 소비자 부담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 DB자료

“책값 대신 콘텐츠” 분위기 됐다

“크게 체감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할인보다는 콘텐츠로 경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계에는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작게나마 출판 품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진단이 뒤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발표한 정가제 시행 이후 100일간의 모니터링 결과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0일간(지난해 11월 21일~지난달 2월 25)에 걸쳐 단행본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정가는 1만8648원으로 전년 동기 1만9456원보다 4.2% 하락했다. 이는 평균 정가가 최고 수준이던 2012년 연말 동기와 비교할 때 6.7% 하락한 것으로, 정가제 이후 출판계의 책값 인상 자체 움직임이 가시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면 시행된 정가제는 모든 도서에 정가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완전 정가제로 가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었다는 출판계 안팎의 지적이다. 이는 신간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책값 거품이 빠지는 등 가격 안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간의 경우 최대 19% 이내 할인에서 15% 이내 할인으로 바뀌었고, 기존에는 제한폭이 없었던 구간이나 학습참고서도 예외 없이 15% 이내 할인 규제가 포함시킨 게 달라진 변화다.

지역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송광룡 문학 대표는 “지난해 도서 정가제를 앞두고 구간 밀어내기 경쟁 등 시장이 교란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도 “정가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품질로 경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출판계

신간 정가 전년비 4.2% ↓

거품 빠지고 가격 안정화

인문서 매출 상위 ‘눈길’

소비자·지역서점가

학습 참고서값 3.8% ↑

독자 부담 다소 높아져

“지자체 등 동네서점 이용율”

그동안 베스트셀러 목록 상위를 차지해오던 실용서 대신 인문학 도서들이 수위에 진입하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일본 작가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인플루엔셜)나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한빛비즈) 등이 한 달간 상위권에 포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정가제 전면 시행 이후 독자 입장에서 책값 부담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할인이 3~4 권 가격으로 1권 정도의 여분을 더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도서정가제 시행 초기라 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승률이 시행 전보다 높아졌다는 견해다.

학원강사인 과지영(44) 씨는 “기존의 최대 19% 할인이 제도 시행 이후 15%로 낮아져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그만큼의 부담을 더지게 되는 꼴이다. 도서정가제가 중소출판사와 지역서점을 위해 도입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의문이 든다. 출판 생태계를 살린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독자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정가제가 바람직한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가제 적용을 새로 받게 된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운 편이다. 예상했던 대로 올 1학기 참고서 판매가격 인상률이 전학기 대비 평균 3.8%로 나타났는데, 제도 시행 이전에는 학습참고서와 구간 도서 할인 제한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구매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출간 중수도 소폭 줄어드는 추세다. 정가제 이후 100일간 1만7364종 단행본이 발간돼 전년 동기보다 7.9% 감소했다.

도서정가제가 서점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문체부가 조사한 25개 주요 지역서점들의 경우 9개(36%) 서점은 매출이 증가했지만 15개 서점(60%)은 매출 변화가 없었으며, 한 개 서점만이 감소를 보였다.

한편 정가제 시행 이후 지자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동네서점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살 때 적극적으로 동네서점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달 22일 관할 공공도서관에 들어갈 1800만원어치의 책을 지역서점에 발주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은 지역 내 서점에서 사자는 움직임이 도서 정가제 이후 지역 중소서점, 출판계를 살리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11시에...

브런치 먹을까 클래식 공연 볼까

광주시향 ‘봄이 오는 소리’

6일 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최근 들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공연이 열리기 전 관객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강좌를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클래식 워크북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11시 음악회를 마련했다. 시향의 정기 공연이 대부분 평일 저녁에 열리는 탓에 찾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준비한 브런치 공연이다. 11시 콘서트는 성남아트센터 등 이미 타 지역에서는 활성화된 프로그램이다.

오는 6일 오전 1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11시 음악회는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열린다.

공연 특성상 난해한 곡들보다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레퍼토리로 프로그램을 짰다.

지휘봉을 이현세 상임지휘자가 잡는다. 협연자는 뮌헨 국립 음대를 거쳐 런던 음악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마리솔

바이올리니스트 이 마리솔이다. 막스 로스탈 국제 콩쿠르 1위 등을 수상한 이 마리솔은 이번 무대에서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과 ‘봄’을 협연한다.

그밖에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이 오는 소리’ 왈츠 작품 410,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중 1악장, 스페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를 만날 수 있다. 공연 관람자에게는 광주문예회관 내 ‘카페 휴’ 음료 할인권을 증정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

조선대, 문화전당 연계 전공 신설...예술인력 양성

조선대학교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뒷받침할 인력양성에 나섰다.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는 “3월부터 학부에 ‘아시아문화연계 전공’(복수전공)을 신설해 문화기획, 문화콘텐츠 제작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3일 밝혔다. 조선대는 지난해 3월 대학원에 문화학과를 개설한 데 이어 올해 학부에까지 전공과목을 신설, 문화인력 교육기관으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신설된 아시아문화연계 전공은 아시아문화

를 주 전공으로 문화기획, 문화콘텐츠 산업, 문화예술공연 과목 등 세부전공으로 나누어 짜여졌다. 학생들은 광주의 문화관련 기관에서 현장체험을 하고 문화현장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운다. 또 아랍 중동,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베트남 문화 등 아시아 각국과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조선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연계 전공을 개설했다.

/윤영기자 penfoot@

세계비엔날레협회 정기총회...내일부터 UAE에서

광주에 사무국을 둔 세계비엔날레협회(IBA) 제2차 정기총회가 4일부터 7일까지 아랍 에미리트에 있는 사르자 공연예술센터에서 “비엔날레의 창조적 구조 및 사회적 실현”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르자예술재단이 지원하며, 비엔날레를 비롯한 정기적 미술행사나 축제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담론들을 토론했고 협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아프리카 현대미술 전문가인 살라 하산 코넬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칼리 라바(팔레스타인 리와 비엔날레 감독), 패트릭 무데케레자(콩고민주공화국 루뎀바시 비엔날레 감독), 크리스틴 톰(홍익스), 수피엔 위씨(드림시티 비엔날레 감독) 등이 참여한다.

한편 세계비엔날레협회 회원은 기관회원인 38개 세계 주요 비엔날레, 개인회원 49명, 준회원 21명 등이다. 문의 062-608-413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hanggi X File' (창기 X파일) on Channel A. The ad features a man in a white shirt holding chopsticks. Text includes: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기자', and a website URL 'http://tv.ichannela.com/culture/xfile' with phone number '02 2020 3333~4'.

Channel A program schedule for Friday, March 6th. Programs include: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